

‘민주공화정’을 꿈꿨던 임시정부의 기록 첫 공개

입력 2019.11.18 (19:31) 수정 2019.11.18 (19:53)

뉴스 7



[앵커]

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.

이 조항의 연원을 따져 거슬러 올라가면, 일제강점기 임시정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.

민주공화정을 꿈꿨던 100년 전 임시정부의 기록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처음 공개됐습니다.

이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

[리포트]

빛바랜 종이 위를 가득 채운 글자들.

일제 강점기 임시정부의 최초 헌법을 정리한 초고입니다.

모두 10개 조항인데, 가장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민주공화제를 규정한 최초의 문서입니다.

25년 뒤 헌법 개정안에서도 민주공화제라는 대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.

모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이 직접 썼습니다.

[조인래/조소앙 선생 손자 : "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조항을 되새기고... (조소앙 선생의) 손때며 생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서들입니다."]

제헌헌법의 기초가 된 30여 점의 자료 중에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손도장이 찍힌 문서도 있습니다.

특히 관람객이 나만의 역사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전시회가 구성됐습니다.

75개의 서랍에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와 당시 신문 115점이 들어 있습니다.

직접 관심 있는 내용을 찾아 한 장씩 꺼내 책으로 엮어 소장할 수 있습니다.

[서해성/총감독 : "민주주의나 공화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권리나 자유는... 그냥 얻는 자유는 없다는 뜻입니다. 서랍을 여는 정도, 우리 선배들이 했던 업적이나 기록들을 나의 힘을 조금 더 해서 자료를 찾아본다는 뜻입니다."]

민주공화정의 연원을 살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8일까지 열립니다.

KBS 뉴스 이수민입니다.



이수민 기자 waterming@kbs.co.kr
기자의 기사 모음

저작권©KBS뉴스(<http://news.kbs.co.kr>).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